

편집장 레터

나의 가치를 네가 정하지마



장재인 편집장

대면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방을 멘 채 커피를 들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모습. 코로나 세대(20학번)인 기자는 감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열리는 강의실의 문과 실기장에서 들리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1교시 수업을 들으며 가는 학생들의 피곤한 표정까지. 누구에게는 새로운 설렘으로, 누구에게는 그리운 감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학생들을 만나는 교수와 조교 등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나의 가치’입니다. 무릇, 나의 가치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가치를 뽐낸다든지 증명해보자는 식의 내용이 주를 이루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치를 인지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보호할 수 있어야만, 그 자랑스러운 가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짓밟으려는 시도는 어디서든 나타날 겁니다. 이는 곧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스포츠 인권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육계의 폭력과 가혹행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계의 산실인 우리 대학에서도 피할 수가 없는 폭력. 4면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개인이 아닌 사회가 나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10면에서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와 학업에 관한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은 아직 어렵니다. 대‘학생’이라는 단어와 같이, 다양함을 경험하고 배우며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시기이죠. 그러나, 대학생들은 나이를 빌미로 성인이라는 틀에 가둬져 병혹한 현실을 스스로 살아나가라고 강요당하는 듯합니다. 그중 금전적인 부분은 이들의 고질적인 걱정거리입니다. 결국, 각자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정도

의 보상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내 가치를 밝히는 것은 타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죠. 대학 수강 신청 기간에는 특이한 문화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강의를 사교과는 행위인 강의 매매입니다. ‘단순히 거래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면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강의 매매가 우리의 가치를 깎아 먹는 행위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나의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주인공 박새로이(박서준)가 한 말입니다. 주인공 박새로이는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알고 신념이 확실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런 그의 말처럼 여러분의 가치는 그 누구도 정할 수 없습니다. 오롯이 나 자신만이 내 가치를 확립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는 대면이 시작되고 발간하는 첫 학보입니다. 학보를 처음 만나는 학우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266호를 읽고 여러분의 가치가 가을의 푸르고 높은 하늘처럼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기자석

2시간 같았던 20분



김수빈 기자

여름방학이었으나 학교로 향했다. 대회의실에서 다목적 체육관 공청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시작한 지 10분 만에 본 기자와 총학생회는 복도에서 하염없는 기다림을 맞이했다. 7월 5일,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린 날이었다. 복도엔 아무 냉방 장치도 없었다. 대기할 공간도 마련되어있는 것도 아니었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 공간에서 공청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20분 동안 대회의실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20분이란 시간은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20분은 2시간과 같았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꼭 나가서 기

다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당황스럽게도 시간강사 관련 회의로 인한 것이었다. 학생들이 들어서는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또 앞선 10분의 시간도 다목적 공청회 관련이 아닌, 전자출결 시스템에 관한 공지였다. 혹시 총학생회엔 공지된 상황인지 문의한 결과, ‘사전에 어떠한 공지도 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생 정도가 되면, 급하고 이해되는 이유로 인해 기다리라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성과 공감 능력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 34도의 더위를 느낄 수 있는 복도에서 기다리기엔 납득하기 어려웠다. 과연 기다려야 하는 대상이 교직원 혹은 교수였어도 같은 선택을 했을지는 의문이다. 뿐만아니라 공청회 자리에서 학생이 발언한 시간은 10분 남짓이었기에 더욱더 아쉬움이 남았다. 이마저도 마무리하려던 분위기 속에 학생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학생의 참석을 상기

시킨 어느 교수의 말로 겨우 가진 기회였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구성원과 학교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일을 정당화할 순 없다. 이번 기회로 학교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돌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학생 역시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관심을 기울여보자. 그렇게 모인 관심은 결국 더 나은 대우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송석 총학생회장이 대회의실 앞에서 공청회가 시작될지 기다리는 모습이다.

우리 생각

2022년 여름, 내가 바다에서 배운 것들



김상민 체육학과 싸이클부 22학번

고성 및 속초 해변 일대에서 진행된 한국체육대학교 해양훈련에 참석하게 되었다. 서핑으로 유명한 양양이 나의 고향이기에 서핑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윈드서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생소한 종목이라 경험해보고 싶어서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윈드서핑은 세일(돛)을 360도 회전하며 바람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서핑의 한 종류이다. 보드 위에 계속 서 있어야하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요구하는 스포츠이다. 또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초보자에게는 어려운 스포츠이다. 사전교육으로 목석 한강윈드서핑교육원에서 처음 세일을 잡았을 때 그 목적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정되지 않은 세일은 불안정한 보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바람조차 불지 않아 물 위에서 표류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참가했던 학생들 대부분이 입수와 퇴수를 반복하였고, 즐겁게 시작했던 윈드서핑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점점 떨어지게 되었다. 7월 12일, 드디어 해양훈련에 나섰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비가 계속 내려 기온이 낮아 윈드서핑을 타기 힘들었다. 바람과 파도는 보드에

올라탄 우리를 가차 없이 차디찬 바닷물에 빠뜨렸고, 다시 보드에 올라서면 칼바람이 몸을 으슬으슬 떨게 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체육대학교의 운동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타 도전하는 자세로 일했다. 나 또한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며 악착같이 타보려 노력했지만, 간절했던 마음과는 달리 윈드서핑을 다루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실패의 쓴맛을 뒤로한 채, 3일차 아침이 밝았다. 비가 온 뒤라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었다. 윈드서핑 담당자이신 육현철 교수님은 오늘처럼 강한 바람에서는 초보자들은 탈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안전을 생각하며 강한 바람에서 체험해 볼 것을 권하셨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몇 명의 용감한 도전자들이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윈드서핑 보드에 올랐다. 수십 번의 도전과 도전을 반복했다. 우리는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의 기상을 살려 봄(조종대)을 잡았고 그 순간 세일이 확 펼쳐지며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수십

번의 실패와 도전이 교육이 된 것이었다. 감을 잡은 이후엔 윈드서핑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람을 타고 나가는 느낌은 환상적이었다. 어느 정도 윈드서핑에 익숙해진 나는 바람에 몸과 세일을 맡기고 자유롭게 헤엄치는 한 마리의 돌고래처럼 자유로운 기분을 만끽했다. 서핑을 끝내고 바다에서 나오는데 교수님들이 ‘윈드서핑 천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 기분도 매우 좋았다. 이번 해양훈련은 나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로 임하면 해내지 못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해양훈련을 통해 ‘해양스포츠지도자자격증’도 취득하게 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한국체육대학교와 윈드서핑 담당 육현철, 박상윤 교수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해양훈련에서 배운 마음가짐으로 졸업 후에도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성장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만 같다.



한국체육대학보

http://news.knsu.ac.kr

발행인 | 안용규      주 간 | 허진석      기 획 | 김세준      편집장 | 장재인  
기 자 | 이종원 · 한지용 · 김규태 · 기민정 · 김수빈 · 방지혜 · 송유나 · 박소영 · 권규태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필승관 B106호  
전 화 | (02)410-6556

취재수첩

두 번의 쏜잔, 한강크로소스스위밍챌린지



방지혜 기자

‘수영으로 한강 건너기에 도전하라!’ 지난 9월 2일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크로소스스위밍챌린지가 개최되었다. 한강크로소스스위밍챌린지(이하 한크스)는 한국체육대학교와 송파구 수영연맹이 함께 주최한 대한민국 서울의 상징인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잠실대교 한강 남단에서 북단으로 헤엄쳐 반환점을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한크스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의 공백기를 갖고 올해 어렵게 개최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두 번의 고비를 마셔야 했다. 한크스의 첫 개최 일정은 8월 13일, 14일 총 2일 예정되었지만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일정이 연기되었다. 연기된 일정은 3주 뒤인 9월 2일로, 기존 이틀에서 하루 진행으로 변경됐다.

기다림 끝에 결국 취소된 행사

흐린 날씨 속에서 9월 2일, 드디어 한크스 행사가 개최되었고 천마응원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듯싶었지만, 일정이 점차 뼈저리게 시작됐다. 주최 측에서 다가오는 태풍의 영향으로 한강의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 행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오고 갔다. 이에 송파구

수영연맹 안성환 회장(이하 안 회장) 참가자들에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계속논의 중에 있다는 공지를 전달했고 이후 계속된 기다림이 이어졌다. 결국 안 회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말을 전달하게 되어 죄송하다. 한강사업본부와 계속 논의했으나 끝내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참가자들에게 현 시간부로 행사가 종료되었음을 알렸다. 사유는 ‘팔당댐 방류량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입수 및 수영 행위 금지’였다.

미흡한 대처에 불난 참가자

참가자 및 후원사 관계자들은 정확한 행사 종료 이유와 추후 대처방안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주최 측 부스에 몰려들었다. 제대로 된 공지를 받지 못한 참가자들의 가장 큰 논점은 ‘환불’ 문제였으나, 주최 측의 답변은 환불 조치 계획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주최 측에서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현황을 알아보고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토로했다. 주최 측 공지사항에 따르면 규정상 팔당댐 방류량이 800㎥/s를 넘을 시 수상 활동이 제한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폭우의 영향으로 8월 30일 이후 팔당댐 방류량이 1,000㎥/s 아래로 내려간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8월 말부터 한강에서의 수상 스포츠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태풍의 북상으로 인해 방류량을 줄이기 힘들다는 것을 주최 측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냐는 의견을 내비쳤다.

깊어져 가는 갈등의 폭

주최 측은 “천재지변으로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항이며 안전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다. 대회는 계획한 일정을 마쳤으며 준비한 기념품 및 상품들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주 내 임원진 회의 진행 후 추후 공지하겠다”라며 말을 마쳤다. 주최 측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오후 참가자 그룹은 행사 취소 공지조치 전달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제주도를 비롯한 거리가 먼 지방 지역 참가자들의 불만이 빚발쳤다. 결국 한크스 행사는 가장 주요 일정인 한강 횡단을 하지 못한 채 마치게 되었다.

이러한 주최 측 입장에 참가자들은 대회가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항의를 이어갔다. 현재 ‘2022 한강크로소스스위밍 사기 피해 모임’ 제목의 오픈채팅방까지 개설되어 참가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월 5일 기준 현재 어반스포츠 공식 홈페이지 및 송파구 수영연맹 카페에 주최 측 입장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다음 주 중 관계자 회의를 통해 행사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가 논의 중이라고 한다.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질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주최 측과 참여자들의 갈등 폭이 좁혀질지는 의문이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두 번이나 고비를 겪었지만, 8년 동안 진행되어온 스포츠계의 대표 행사인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된 한강크로소스스위밍 챌린지가 될 수 있길 바란다.

한국체육대학보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신문제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고와 제보는 이름, 연락처, 학번, 학과를 기입해서 이메일(actibeast@knsu.ac.kr)로 보내주시거나 필승관 B106호로 방문 바랍니다. 원고가 실린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